

# 특집

□ 石油製品市場  
동향과 전망 □

## 中東產油國의 下流部門

### 진출과

### 消費國들의

### 대응

- 美·日·유럽을  
中心으로 -



李紀勳

〈産業研究院 動向分析室 研究員〉

世界精油産業에 있어 80년대는 참으로 혹독한 시련기가 되고 있다. 지난 70년대 석유 수요 팽창기에 향후 석유수요를 과대에측하여 무리하게 精製設備을 확장한 시행착오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두차례의 石油波動을 겪고 난 뒤 石油代替에너지의 개발 및 사용이 점차 확대되고 에너지節約型産業이 발달되고 있는데다가 80년대초 세계적인 不況까지 겹쳐 세계석유수요는 매년 크게 감소되어 왔다.

지난 80년에 하루 5,000만 배럴에 달했던 자유세계의 석유수요는 지난 해에 하루 4,600만배럴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수요감소로 世界石油 産業은 과잉설비감축, 구조개편 등을 통해 脫不況의 몸부림을 쳤으나 지난 수년간 100억달러 이상의 손실을 보고야 말았다.

매년 크게 감소되어 오던 世界石油需要는 지난해에 2% 정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는 先進國의 成長勢 회복이라는 요인보다는 酷寒이나 英國 石炭勞組의 파업이라는 일시적인 현상에 더 크게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금년에도 이같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석유수요감소추세는 계속될 것이며, 향후 수년내 석유수요가 대폭 증가하기란 어려울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中東을 비롯한 일부 產油國들의 새로운 경제설비가 완공, 속속 가동에 들어가고 있어 세계정유산업의 불황을 가중시키고 있다. 사우디, 쿠웨이트 등 中東產油國들은 원유수출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석유제품을 수출하여 石油收入을 늘리는 동시에 세계석유제품시장에서의 主導權을 확보함으로써 원유가격도 안정시킨다는 의도로 지난 70년대에 막대한 자금을 精油施設에 투자하여 왔다.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우디의 안부(Yanbu) 精油工場이 지난해 가을에 완공되었으며, 금년 봄에는 주베일(Jubail) 工場이 완공되었고, 내년 말경에는 라비그(Rabigh) 工場이 완공될 예정이다. 이로써 기존 석유제품시장의 공급과잉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하지만 여기서 생산된 제품이 현재의 공급과잉하에서 판로를 확보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產油國들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건설한 정제시설들이 때를 잘못 맞춘 실패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의 세계석유수요 감소추

세가 中東產油國 스스로가 일으킨 石油波動의 결과이므로 막대한 투자가 실패로 된 것도 自業自得이라고 볼 수 있겠다.

어쨌든 수십억 달러가 소요된 정제시설들을 사막에 방치할 수는 없는 일, 稼動率이나 經濟性은 일단 접어두고 세계시장에 出荷를 개시할 것이다. 여기서는 中東產油國들의 신규정제설비의 현황과 판매전략을 알아보고, 美國, 日本, 유럽 등 3大消費地의 대응책에 대해 말해 보고자 한다.

### OPEC의 製品輸出能力, 87년에 하루 250~350만 배럴

지난 70년대 후반 사우디는 原油의 생산 및 판매뿐만 아니라 石油의 정제 및 석유제품의 판매에도 진출하기 위해 거액을 들여 정제설비를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첫번째 설비가 양부(Yanbu) 精油所이다. 美國系 메이저인 모빌(Mobil)과 페트로민(Petromin)의 合作으로 지난해 10월에 완공된 이工場은 紅海沿岸에 위치하고 있다. 精製能力은 하루 25萬 배럴인데 아직 本格的인 출하는 되지 않고 있다.

두번째는 금년 4월에 완공된 जु베일(Jubail) 精油所이다. 로얄 더치/셸(Royal Dutch Shell)과 페트로민이 合作으로 건설한 이 공장은 페르시아灣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제능력은 역시 하루 25만 배럴이다.

세번째는 내년 말 경에 완공될 예정인 라비그(Rabigh) 精油所로서 紅海沿岸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제능력은 하루 32만 5천배럴이다. 그리이스 石油會社인 페트롤라(Petrola)와 페트로민의 合作이다.

그러나 미국의 엔지니어링회사인 벡텔(Bechtel)이 受注한 사우디 首都 리야드(Riyadh) 북부 과심(Qasim)과 지잔(Jizan)의 4, 5번째 設備建設은 무기연기 되었다.

쿠웨이트는 83년에 슈아이바(Shuaiba) 精油工場이 완공된 것을 비롯, 86년에는 하루 20만배럴 처리능력의 미나 압둘라(Mina Abdullah), 미나 알아흐마디(Mina Al-Ahmadi) 工場이 가동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쿠웨이트는 유럽쪽에 정유공장이나 販賣會社 등의 下流部門에도 상당히 진출해 있다. 특

히 쿠웨이트나 사우디의 정제설비들은 세계적으로 가장 高度化된 설비들이다.

U. A. E.의 경우 아부다비石油會社가 87年 완공 예정으로 루와이스(Ruwais)에 하루 17만 배럴 규모의 精油工場을 건설중이며, 리비아도 라스 라누프(Ras Lanuf)에 하루 22만배럴 처리능력의 精油工場을 금년에 완공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의 정유공장은 원래 內需用으로 건설되었으나 자국내 석유제품가격의 상승으로 內需增加가 부진해져 수출여력이 생겼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인도네시아의 수출능력은 미미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설비확장으로 OPEC제국의 정유능력은 크게 증가할 것이다. 정유능력은 84년 현재 하루 530만배럴에서 87년까지는 하루 770만 배럴로, 수출능력은 250~350만배럴(가동률 80~90%일 경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GCC 국가만의 수출능력은 하루 190만 배럴에 달할 전망이다.

한편 非OPEC개도국에서 건설중인 도합 하루 220만 배럴 규모의 정제설비를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중남미 지역에서 건설되고 있는데, 외채문제 등 재정난으로 지연되고 있어 80년 대중으로는 市場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 사우디, 長期契約方式 販賣를 指向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현재 세계석유제품시장의 공급과잉하에서 產油國들의 진출은 시기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사우디만 하더라도 한 설비에 약 20억달러, 인프라스트락처 등의 공사비를 감안하면 세 設備에 약 200~300억 달러가 투입된 수출용 정제설비를 사막에 방치해 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적정가동률이나 採算性을 다소 무시하고서라도 가동할 수 밖에 없다.

세계정유업체는 이들 產油國들의 석유제품 생산 및 판매전략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최대의 수출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石油市場의 영향력 또한 막강한 사우디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다.

사우디는 신규 수출용정제설비가 완공되기 전부터 사우디의 석유제품수출로 인해 현 세계석유시장의 價格이나 판매설서가 교란되는 경우는 없을 것

으로 공언해 왔다. 사우디는 原油價格의 안정화에 노력했듯이 석유제품시장에서 공정한 질서수립에 앞장 설 것으로 밝힌 바 있다.

사우디는 제품판매에 있어 長期契約下에 공식가격대로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고객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 OPEC의 原油도 원칙상 公示價대로 판매되어야 하나 최근에 公示價는 유명무실해져서 價格割引이 상식화되고 있으며, 現物價格도 公示價를 크게 하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석유제품을 現物時勢대로 팔기를 선뜻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사우디는 고객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급년 4월에 두번째로 완공된 朱비일정 유공장은 시운전은 이미 마쳤으나 장기계약을 확보하지 못하여 조업개시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안부工場에서 생산된 제품은 페트로민이 최근 사우디系 會社에 月間베이스로 판매하거나, 유럽에 설립한 석유제품판매회사를 통해 휘발유, 重油, 나프타 등을 낮은 現物價格대로 판매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 사우디는 장기계약판매를 고집하고 있으나, 현재 세계석유시장이 buyer's market인 이상 市場原理대로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쿠웨이트는 고도로 정밀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판매전략에도 유연성을 보이고 있어 무난히 판로를 확보하고 있다. 쿠웨이트는 현물가격에 連動한 長期契約方式이나 현물시장판매방식을 취하고 있다.

쿠웨이트는 사우디의 수출이 본격화되기 전에 아시아市場을 先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최근 미국의 Getty Oil이 소유한 三菱石油의 株式을 처분하려 할 때 쿠웨이트가 日本市場의 교두보 확보를 위해 이를 인수하려고 한적도 있다.

### EC, 美·日·EC 公平分担案 提議

1차 石油波動이 일어난 73년부터 84년에 이르기까지 EC 10개국의 석유제품 수요는 24%나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EC各国은 지난 80年末 하루 1,560만 배럴에 달했던 정제설비(常壓蒸溜裝置)를 현재까지 약 30%에 달하는 420만 배럴 감축하였다. 이 기간중 37개소의 정유공장이 전면 폐쇄되고, 22개소가 부분 폐쇄되어 77년 139개소였던 정

유공장 수가 현재에는 93개소로 줄었고, 적어도 1만 6,000명의 失業者가 생겨났다.

國別로는 西獨과 벨기에의 설비감축률이 40%에 달하고 있으며, 나머지 국가들도 20~30%에 달한다.

지난 3월 15일 EC委員會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EC는 域内の 정제설비를 오는 90년에 77년보다 35%가 감소한 5억 5,000만톤(年間)으로 삭감하는 노력을 계속함과 동시에 사우디 등 產油國들에게는 책임있는 수출태도를 유지해 줄 것을, 美·日 등 消費國들에게는 產油國의 수출제품을 公평분담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EC는 사우디, 쿠웨이트, 리비아 등 產油國의 제품수출물량이 5,000만톤(年間)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면서, EC各国이 1,500만톤의 최종제품과 500만톤의 中間製品을 합쳐 총 2,000만톤을 純수입하고, 나머지 3,000만톤을 美國과 日本이 1,500만톤씩 수입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EC는 產油國에서 수출된 제품이 유럽市場에 집중되는 것을 막고, 產油國의 신규 설비를 구제하려는 계획이다.

지난 5월 중순 오드랜드(Audland) EC에너지 총국장은 日本을 방문 外務省과 通産省에 협력을 요청한 바 있으며, EC는 7월 9일에 열린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日本과 美國에 公平分担案을 원칙적으로 수락하도록 하는데 성공하였다.

### 日本, 輸入自由化 움직임 高潮

日本의 설비감축이나 설비고도화 노력은 외국에 비해 다소 뒤지고 있다. 日本은 石油審議會 石油部會 小委員會가 지난 81년말에 작성한 보고서에 기초하여 元売會社의 시장점유율이 10% 이상 되게 통폐합을 단행 13개 元売會社가 7개로 집약되었으며 83년에 하루 594만톤이던 上압증유설비능력이 현재 497만톤으로 97만톤이 삭감되었다.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日本의 석유제품수입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日本의 수입제도를 보면, 原油나 석유제품은 外國換 및 外國貿易管理法上 수입제한 품목이 아니다. 다만 石油業法에 의하면 석유수입업을 시작하려면 通産大臣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년 수입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通産大臣은 石油審議會의 의견을 들어 석유공급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입계획의 변경을 「권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권고」는 행정지도로서 사실상 「금지」인 셈이다. 따라서 日本은 석유제품수입이 사실상 금지된 상태이며 消費地精製主義方式에 입각하여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나프타, 重油 등 일부 품목의 수입을 제한부로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日本은 세계 제 3위의 제품수입국이다. 83년의 총수입실적은 3,500만톤에 달하며 이 중 中東으로부터 1,300만톤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日本에는 석유산업의 국제화 움직임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 골자는 휘발유, 燈油 등 석유제품의 수입금지를 해제하고, 제품수출을 탄력화하며, 수입대금의 外貨 決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특히 석유제품의 수입자유화는 外國으로부터의 開放壓力이 높은데다 自由貿易原則에도 부합되며, 국내소비자에게 저렴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으며, 국내정유산업 뿐만 아니라 他産業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으므로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小売會社나 元売會社間에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라이온즈石油會社は 지난해 12월 싱가포르로부터 휘발유 수입을 시도한 바 있으나, 通産省의 행정지도로 무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日本石油業界는 수입자유화를 반대하고 있다. 지난 5월 말에 개최된 日本全國石油商業組合聯合會에서는 최근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수입자유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미 피폐한 日本의 石油業界에 낮은 가격의 제품이 수입되면 石油産業은 피멸한다. 더구나 석유공급불안은 국민생활이나 산업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단순한 市場原理만 도입할 수는 없다』고 주장, 현 정책을 지속할 것을 요망하였다.

日本 通産省도 이러한 業界의 입장을 대체로 지지하여 왔다. 그런데 日本은 지난 7월 9일 파리에서 열린 IEA 각료이사회에서 公平分担案을 수락하였다. 이는 사실상 輸入을 자유화하는 것이며 消費地精製方式의 再考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안은 石油審議會의 논의가 끝나야 하므로 輸入擴大는 빨라야 86年度 石油供給計劃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1년

정도에 걸쳐 日本에서는 石油産業體制整備, 消費地精製方式의 점진적 國際化가 진행될 것이다.

### 美國, 輸入規制 論議 활발

원칙적으로 석유제품의 수입자유화를 실시하고 있는 美國은 EC의 公平分担案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石油會社가 석유제품의 수입규제를 요구하고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規制派의 대표인 Texaco는 美議會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지난 4년간 폐쇄된 정유공장수는 109개, 감축된 설비능력은 하루 400만 배럴에 달해 현재의 정유공장수는 206개소, 설비능력은 하루 1,580만 배럴이며, 해고된 노동자수도 23,0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석유제품공급의 安保上의 중요성을 감안해

〈表-1〉 1987~88년의 OPEC 및 GCC諸國의 製品生産과 輸出可能量

(單位: 千B/D)

| 輸 出 國     | 製品生産  | 國內生産  | 製品輸出        |
|-----------|-------|-------|-------------|
| 바 레 인     | 225   | 16    | 209         |
| 쿠 웨 이 트   | 690   | 95    | 595         |
| 오 만       | 45    | 29    | 20          |
| 카 타 르     | 55    | 16    | 41          |
| 사우디아라비아   | 1,655 | 614   | 1,040       |
| U A E     | 160   | 125   | 35          |
| G C C 計   | 2,830 | 895   | 1,940       |
| 이 란       | 975*  | 740   | 0~235*      |
| 이 라 크     | 385*  | 430   | 0*          |
| 其他 灣岸國    | 1,360 | 1,170 | 0~235       |
| 알 제 리     | 390   | 130   | 260         |
| 에 콰 도 르   | 75    | 127   | -           |
| 가 봉       | 15    | 44    | -           |
| 인 도 네 시 아 | 810   | 550   | 260         |
| 리 비 아     | 315   | 146   | 170         |
| 나 이 지 리 아 | 230   | 221   | 9           |
| 베 네 수 엘 라 | 1,220 | 420   | 800         |
| 其他 OPEC   | 3,055 | 1,638 | 1,490       |
| 灣岸과OPEC計  | 7,245 | 3,703 | 3,430~3,665 |
| O P E C 計 | 6,975 | 3,660 | 3,200~3,435 |

註: \*이란·이라크 戰爭으로 不確定要素 있음.  
〈資料〉「石油協會報」, 1985. 4.

서라도 수입관세인상, 수입쿼타부과 등의 수입규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美国 独立系精油會社들은 수입규제에 더욱 적극적이다. 지난 6월 4일 美上院 에너지委員會에서 「석유제품수입이 국내석유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 열린 청문회에서 美 独立系 精油會社聯合(IRC) 代表인 I. R. Paul은 OPEC의 신규설비에서 생산된 제품이 日本이나 EC의 수입장벽으로 인해 美国으로 대량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政府가 日, EC의 市場開放을 촉구하는 한편 수입규제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수입관세를 일반 물가상승률에 맞춰 인상, 휘발유의 경우 현행 배럴당 1.25센트인 수입관세를 5달러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레이건行政府는 수입규제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B. J. Boggs 美 에너지省 차관은

美議會 증언에서 美政府는 自由貿易을 지지하므로 수입규제 요구를 거부할 방침이며, 여타 주요 消費国들에 대해서는 수입장벽의 철폐를 요구하는 확대적 방향으로 대처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行政府의 냉담한 반응에 직면한 美国石油業界는 議會쪽으로 방향을 전환, 활발한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다. 美 石油業界는 議會에의 영향력이 상당한 만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國內精油產業도 構造改編 서둘러야

현재의 세계석유시장정세로 미루어 향후 수년간은 世界 石油 및 석유제품수요가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原油價格의 하락도 필연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中東

〈表-2〉 EC 主要國의 常壓蒸溜裝置 削減現況 (1981~85年)

(單位: 하루 1,000배럴)

|         | BP  | Shell | Exxon | Mobil | Chevron | Texaco | 기 타   | 合 計   | 1980年末<br>設備能力 | 削 減 率<br>(%) |
|---------|-----|-------|-------|-------|---------|--------|-------|-------|----------------|--------------|
| 西 獨     | 254 | 74    | 134   | 160   | 45      | 53     | 455   | 1,175 | 2,940          | 40.0         |
| 프 랑 스   | 156 | 306   | 58    | 10    | —       | —      | 580   | 1,110 | 3,300          | 33.6         |
| 이 탈 리 아 | —   | —     | —     | —     | —       | —      | 750   | 750   | 4,000          | 18.8         |
| 英 國     | 238 | 274   | 170   | —     | —       | —      | 32    | 714   | 2,500          | 28.6         |
| 네 덜 란 드 | —   | 94    | 2     | 130   | 116     | —      | 14    | 356   | 1,700          | 20.9         |
| 벨 기 에   | 52  | —     | —     | —     | 140     | 188    | 76    | 456   | 1,140          | 40.0         |
| 計       | 700 | 748   | 364   | 300   | 301     | 241    | 1,907 | 4,561 | 15,580         | 29.3         |

〈資料〉「Economist」, 1985. 6. 25

〈表-3〉 主要國의 石油製品 輸入動向

(單位: 千톤)

|       | 英 國           | 프 랑 스         | 西 獨           | 美 國          | 日 本           |
|-------|---------------|---------------|---------------|--------------|---------------|
| 1978年 | 11,585 (13.8) | 9,298 (8.6)   | 42,000 (32.6) | 76,356 (9.8) | 23,946 (10.1) |
| 1979年 | 12,035 (14.4) | 10,400 (9.5)  | 36,006 (27.2) | 63,831 (8.6) | 28,206 (11.5) |
| 1980年 | 9,227 (13.4)  | 12,675 (12.9) | 37,471 (32.3) | 52,231 (7.8) | 24,590 (10.8) |
| 1981年 | 9,120 (13.8)  | 13,764 (15.7) | 36,380 (33.8) | 48,817 (7.2) | 27,007 (11.9) |
| 1982年 | 12,524 (18.6) | 18,923 (23.3) | 38,666 (37.2) | 49,874 (7.6) | 29,920 (14.9) |
| 1983年 | 9,900 (15.4)  | 21,118 (26.4) | 43,955 (43.1) | 55,039 (8.4) | 34,843 (18.2) |

註: ( )内는 内需에 接하는 石油製品 輸入比率(%)임.

〈資料〉〈表-2〉와 같음.

산유국들의 下流部門 진출은 세계정유산업의 불황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세계정유산업의 집약화나 국제화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국제화의 진전에 따라 80년대 초 세계 石油貿易中 12% 정도를 차지하던 석유제품무역이 86, 87년에는 25~27%로 증가될 전망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국내정유산업의 국제화압력도 드세어질 것이다. 특히 中東產油國과 交易比重이 높은 우리에게 대한 시장개방압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정유산업은 이러한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외국정유산업과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構造改編作業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정제설비의 고도화로 향후 수요의 경질화 추세에 대응하고,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며, 기술개발 및 축적으로 설비고도화를 뒷받침하고, 정부규제완화 등 정부관리제도의 효율화로 市場變化에 적응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등의 방안을 들 수 있으며, 國內生産을 보완하기 위한 적정수준의 제품수입도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이든 安定供給의 확보를 전제하여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

□ 資 料 □

## 自由世界の 석유수급전망

IEA는 앞으로 에너지 效率提高 및 代替에너지개발 등 에너지 生産 확대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1990년대에 새로운 에너지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는 IEA의 1984年 年次報告書인 「IEA 國家의 에너지 政策과 計劃」에서 밝혀졌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IEA 21개국의 1차에너지 수요는 연평균 1.6% 포인트 증가하여 2000년에는 4,468백만TOE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2000년까지의 年間石油수요는 1984년의 1,559백만 TOE 수준에서 크게

변동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自國産石油의 생산감소로 石油需要에 대한 輸入石油의 比重은 1984년의 50%에서 2000년에는 58%로 增加될 展望이다. 한편 자유세계의 OPEC産 石油수요는 84년의 18.5백만b/d에서 2000년에는 28.4백만b/d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의 연평균 增加率은 2.7%로 IEA의 1차 에너지 수요증가율을 앞지르고 있다. IEA의 世界石油수급전망은 다음과 같다.

自由世界の 石油需給 展望

| 區 分                      |                         | 1983    | 1984 <sup>1)</sup> | 1990  | 2000  |
|--------------------------|-------------------------|---------|--------------------|-------|-------|
| IEA<br>(백만TOE)           | 總 1차에너지需要 <sup>2)</sup> | 3,389.7 | 3,536              | 3,966 | 4,468 |
|                          | 非石油需要                   | 1,877.4 | 1,977              | 2,378 | 2,915 |
|                          | 石油需要                    | 1,512.3 | 1,559              | 1,588 | 1,553 |
|                          | 石油의 純輸入                 | 739.4   | 774                | 855   | 894   |
| 世界 石油<br>需 要<br>(백만 b/d) | IEA                     | 31.7    | 32.6               | 33.3  | 32.6  |
|                          | 其他自由世界                  | 13.5    | 13.7               | 16.6  | 21.2  |
|                          | 總需要                     | 45.2    | 46.3               | 49.9  | 53.8  |
| 世界 石油<br>供 給<br>(백만 b/d) | IEA / OECD              | 16.0    | 16.6               | 15.4  | 13.9  |
|                          | OPEC                    | 18.4    | 18.5               | 23.0  | 28.4  |
|                          | 非OPEC 低開發國              | 7.5     | 8.1                | 9.0   | 10.0  |
|                          | CPE로부터의 純輸入             | 1.7     | 1.8                | 1.5   | 0.5   |
|                          | 其 他 <sup>3)</sup>       | 1.6     | 1.3                | 1.0   | 1.0   |

註: 1) IEA의 推定值      2) 국제빙커링 포함.      3) Processing Gains 및 在庫變動 包含.